

## 상담학 연구방법론의 패러다임과 분석방법

박 성 희

청주교대

상담학의 연구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과학적 실증주의 전통에 입각한 '인정된 관점'과 이해와 의미의 세계를 강조하는 '대안적 접근'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패러다임의 특징들을 비교하고 상담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두 접근이 조화롭게 활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안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상담학의 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 방법들을 실증적 연구방법과 대안적 연구방법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연계분석, 단일 사례 실험연구, 시계열 분석, 모의상담 연구법, 포인트 평가 기법, 현상학적 연구, 해석학적 연구, 법정 연구 모형, 생활사 연구, 자서전 연구법, 담화분석, 체험적 접근, 인공두뇌학적 접근, 과제분석, 대인관계 과정 회상법, 삼각측량법 등의 탐구 방법들이 간단히 설명되어 있다.

상담은 사람을 돕는 전문 영역으로서 흔히 세 가지 활동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심리적, 사회적 장애나 문제 행동의 예방, 치료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의 지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력활동의 내용과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상담은 사람들을 돕는 실천적인 활동이다. 상담이 갖는 이러한 실천적인 특성은 상담자들로 하여금 다른 무엇보다도 상담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한다.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하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천상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이다. 대다수의 상담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주로 상담 경험을 많이 쌓고 또 유능한 상위상담자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믿

어왔다. 그러나 일부 상담자들은 상담과정에 작용하는 여러가지 변인들에 대한 연구와 탐색을 통해서도 실천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상담 연구방법론의 발전은 후자의 관심에서 비롯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상담 역시 하나의 체계화된 학문체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지식들을 소유해야함과 아울러 그런 지식들을 생산해내는 연구방법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상담 연구방법에는 여타 학문 영역에서 발전시킨 방법론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담학이 하나의 성숙한 학문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담학 자체내에서 고유하고 독특한 연구방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담

에 종사하는 모든 상담자와 연구자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의 하나일 것이다. 이 목표를 향한 첫번째 과제는 상담자들에게 상담 연구방법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대다수의 상담자들은 상담의 연구에 별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상담연구와 자기가 수행하는 상담활동은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만을 꼽아보면, 연구방법론에 대한 무지와 상담연구와 실천간의 괴리현상을 들 수 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많은 수의 상담자들이 연구방법론(특히 실증적인 연구방법론)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 못하다. 상담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중의 하나가 실증적인 연구방법론(특히, 통계)에 자신이 없는데 상담은 이런 지식이 없어도 해낼 수 있는 부드러운(soft) 과목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상담자가 아주 많다. 또 상담자를 양성해내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울 검토해 보면 연구방법론을 한, 두 강좌 정도(아예 없는 곳도 있음) 개설해 놓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교육과 훈련으로 상담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연구 역량이 축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사전 지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연구와 상담실제 간의 괴리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두 영역간의 괴리현상이란 상담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들이 구체적으로 상담을 실행하는 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담자에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연구 결과들이 상담의 실제에 반영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터무니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그 결과 상담현상에 관한 이론적 탐

구는 석·박사학위를 취득할 때 또는 연구업적을 쌓기 위해 논문을 작성할 때나 필요한 것으로 격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론과 실제, 연구와 실천간의 괴리현상은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발견되기는 하지만 상담과 같은 실천 지향적인 영역에서는 연구라는 것이 도대체 필요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상담을 단순 기능으로 전락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담자와 상담연구자들은 이런 사태를 심각하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상담은 사람의 변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고유한 전문 분야이다.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은 얼마나 다양하고 세련된 방법들에 의해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는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상담학을 탐구함에 있어 연구방법론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상담학도들과 상담자들이 연구방법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상담학자들은 상담학의 발전을 위해서 상담 연구방법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의 상담연구를 지배해왔던 전통적 패러다임에 대항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검토하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상담학 연구 방법들을 개괄해 봄으로써 상담 연구방법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논점들을 정리할 기회를 갖기로 한다.

## 상담방법론에 대한 두 가지 패러다임

상담학의 전통적 연구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있다. 인간(윤리) 과학에 자연과학적 방법의 도입을 제안한 Mill(1843/1953) 이후에 자연과학적 방법은 사회과학과 행동과학에도 채용되어 지식 생산을 위한 주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물론 인간학을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학적 처방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자연과학적 방법이 학문을 탐구하는 지배적인 방법으로 기능해 온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상담의 영역에서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에 의문을 던지고 본격적으로 대안적 연구방법론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Gelso(1979)로부터 비롯된다. Gelso는 연구자가 선택하는 탐구 전략과 연구 방법은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패러다임의 다양성'(paradigmatic diversity)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패러다임의 다양성은 기존의 과학적 연구 방법을 전면적으로 대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구 문제의 성격에 따라 과학적 방법을 융통성있게 조절하자는 내용이었다. 연구방법에 대한 융통성, 개방성을 강조하는 다소 온건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Goldman(1976)은 연구방법상 근본적인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상담학의 탐구 대상으로서의 인간은 자연현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탐구하는 현상의 특징에 따라 자연과학적 접근 방식을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온건론이든 강경론이든 자연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비판은 소위 과학에 대한 '인정된 관점'(received view)이 인간

현상을 탐구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참된 과학적 지식이 어떤 것인가를 규정하는 자연과학의 기본적 규준은 1930년대에 강한 공감대를 얻으면서 형성되었는데, Putnam(1962)은 이를 과학에 대한 '인정된 관점'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관점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명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제시한 바 있다 :

1. 지식은, 단순한 의견과는 달리, 오로지 직접관찰을 기술한 진술들 또는 직접관찰을 기술한 것과 연역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진술들 속에만 포함되어 있다.
2. 과학의 목적은 연역적 논리에 의해 함께 연관되어 있는 지식 진술들의 망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는 소수의 공리적 진술들로부터 도출되며 최종적으로는 관찰된 진술들 속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주관적 편견이나 형이상학적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진술들은 관찰에 뿌리를 두고 공리체계내에서 연결된 진술들 뿐이다. 모든 참된 과학은-인간 현상에 관한 과학들을 포함하여-이러한 종류의 진술들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참된 과학적 지식 체계는 감각을 통한 직접적인 관찰과 연역적 논리(검증 과정과 관련시키면 귀납적 논리를 포함하고 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인정된 관점'이란 이렇듯 극단적인 실증론적 입장에서 있으므로, 이 관점을 따르는 연구에서 허용할 수 있는 연구 전략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연구 대상이 인간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과학적 방법론의 전통을 따르던 상담 심리학의 대부분의 연구물들이 수와 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

러한 점을 잘 설명해 준다. 과학성, 특히 감각을 통한 관찰과 검증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탐구할 수 있는 대상세계는 물론 탐구 방법까지도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과학에 대한 '인정된 관점'은 대다수의 과학철학자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았으며 특히 인간을 탐구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며 인정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Suppe, 1974/1977, p.116). 학자들의 비판은 주로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집중되었다. 첫째는 관찰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관찰하는 사람의 해석으로부터 독립된 그야말로 객관적인 관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찰자는 항상 모종의 이론적, 문화적, 또는 개인적 가치체제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관찰을 수행한다. 따라서 있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관찰이라는 것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객관적 관찰이 불가능하다면, 관찰되는 사실들은 항상 모종의 정보가 누락된 채로 또는 왜곡된 채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엄격한 객관적 관찰을 과학적 지식의 밑바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인정된 관점'은 출발에서부터 오류를 범하는 셈이 된다.

둘째는 귀납의 문제, 즉 개별적인 관찰로부터 일반화된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인정된 관점'은 지식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연역적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연역적 논리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모종의 일반화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된 개별 사례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개별적인 사

례들을 검증했다고 해서 그 가설이 확실하게 긍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가능한 사례들을 아무리 많이 표집한다고 하더라도 표집된 사례들이 그 가설이 타당하다는 추론을 보증하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귀납의 문제이다. 가설 검증은 양을 바탕으로 한 귀납적 방법에 터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확률적인 진술만을 산출해 낼 수 있을 따름이다. 귀납이라는 방법론에 의지하여 과학적 지식의 망을 형성하려는 '인정된 관점'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와 언어이외의 실재를 관계짓는 방식에서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Wittgenstein(1953/1968)은 일상언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모든 지식은 개인의 조망에 따라 상대적이다. 개인이 처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벗어난 절대적인 관점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순수 감각 자료라든가 형식적 논리 역시 지식에 대한 절대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 개인의 지식, 경험을 형성하는 범주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등등은 모두 그 개인이 전수받고 또 그 속에서 살고있는 낱말(언어) 게임 또는 세계관의 기능에 불과한 것이다. 실재에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에게 역사적으로 주어진 세계관의 불투명한 안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을 따름이다. 우리가 특별히 구성하고 걸러낸 경험만이 실재를 정확하고 참되게 기술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의 투사에 불과하다(Polkinghorn, 1984, p.421).

이렇게 본다면 실증적인 자료로부터 얻어진 진술만이 참된 지식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편

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로 환원할 수 없는 진술들, 예를 들어 '의미', '가치', '정의', '아름다움' 등과 같은 진술들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감환되지 않는 한 과학적 지식 속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인정된 관점'의 주장은 억지라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그들의 언어내에서는 그들의 과학적 지식관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지식관이 잘못된 것이거나 또는 여러가지 선택 가능한 지식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현상을 파악하는 패러다임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가지 패러다임들이 서로 경쟁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들 중 유용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패러다임은 살아남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것들은 대체될 수밖에 없다. '인정된 관점'이 주장하는 과학적 패러다임 역시 여러 패러다임 중 하나에 불과할 따름이며 여타 경쟁적 관계에 있는 패러다임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소위 '인정된 관점'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984년도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는 상담 연구방법론에 관한 특집을 실고 있는데 여기서 Dawis(1984)는 '인정된 관점'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비판을 7가지 측면으로 압축해 제시하고 있다. 모든 인간 현상을 궁극적으로 물리나 화학적 개념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점, 인과적 설명만을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는 점, 주관적, 개인적 경험 세계를 멀리하고 객관적인 현상에 대해서만 탐구하려는 점, 개인을 비어있는 대상으로 보고 환경속에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점,

연구 자료를 수와 양의 형태로 표현하고 정밀한 측정을 요구하는 점, 일반화를 위해 반복 연구를 통한 검증을 강조하는 점, 현상을 관찰할 때 사전에 결정된 구조를 강요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Hoshmand(1989)는 감환-실증적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학적 접근에 대해 인식론적 차원, 개념적-경험적 차원,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비판하고 있다. 맥락에 대한 고려없는 인간 탐구는 공허할 따름이며 지식의 토대가 되는 '사실'이 모종의 이론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 현상과 관련된 지식의 준거나 탐구 자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소위 감환론적 방법과 실증주의에 입각한 조작주의는 적합치 못하다. 또 정밀한 측정과 엄격한 객관적 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표준이 결국은 탐구할 수 있는 개념에 한계를 지우고 탐구 범위 역시 축소시킨다. 지식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인간 현상을 외현적 행동과 생물학적 법칙으로 환원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험적 방법만이 가치로운 도구로 여겨진다.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도 이 접근은 문제가 있다. '인정된 관점'은 결정론적 관점에 서서 인간을 규정함으로써 사람의 자기-결정력을 무시하는 신념에 입각해 있다. 인간의 수동성, 피결정성을 상징하는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포착되는 모습과 인간의 능동성, 주체성을 인정하는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포착되는 인간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므로 전자에 입각한 탐구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인간 현상을 왜곡되게 드러낼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탐구

활동에 개재되는 가치에 관한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탐구하는 활동 자체가 어떤 가치에 항상 얽매어 있는 것이라면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무리하게 가치 중립성을 표방하기 보다는 탐구 활동에 스며있는 가치의 문제를 적극 포용하고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것이다. Lincoln과 Guba(1985)는 '실증주의'를 과학과 과학적 방법을 평가함에 있어 극단적으로 실증적 방법을 채용하는 일군의 철학이라고 규정하고 인간을 탐구하는 방식으로서의 실증적 접근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실증주의는 지켜나가기 점점 더 어려운 적어도 다섯 가지 가정에 의존해 있다. 첫째, 전체는 단지 부분의 총화일 뿐이라는 존재론적 가정, 둘째, 관찰자와 관찰대상을 분리된 것으로 보는 인식론적 가정, 셋째, 시간적, 맥락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된 관찰의 독립성에 대한 가정, 넷째, 직선적 인과성에 대한 가정, 다섯째, 탐구의 가치중립성(탈 가치성)에 대한 가정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인간에 대한 탐구는 실증주의를 대체하는 소위 후실증주의(여기서 후실증주의는 민족지적, 현상학적, 주관적, 사례 지향적, 질적, 해석학적, 인간적 등의 개념과 동의어로 쓰임)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증주의와 후실증주의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가능한 접근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화해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후실증주의는 실증주의적 방법에 첨가되어서는 안되고 이를 완전히 대체하여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다.

그러나 '인정된 관점'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비판들이 과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기인해 있거나 또는 과학적 접근의 부분적인 오류를 과학적 접근 전체의 오류로 확산시켜 비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탕속의 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조작주의에 대한 정의는 10여개가 넘고, 또 극단적 조작주의는 심리학에서 이미 폐기된지 오래인데도 아직도 실증적 조작주의가 과학적 방법론의 전부인 양 오해하여 심리학에서 과학적 접근 전체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Gelso & Fassinger, 1990).

Dawis(1984)는 과학적 활동의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인정된 관점'을 다음과 같이 대변하고 있다. 과학적 활동(또는 '인정된 관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실재(reality)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밑바탕으로 그 실재를 구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론(theory)은 이와같은 과학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론은 지속적으로 개정 또는 폐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최종적인 이론이란 있을 수 없다. 과학에서의 관찰(observation)은, 바로 이것이 과학을 실증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이론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우연과 같이 이론의 도움을 받지 않고 관찰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종의 이론이 형성된다. 예측(prediction)을 과학의 목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예측 역시 이론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예측과 그 예측을 입증하기 위해 뒤따르는 관찰들을 통해 이론은 확증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통제(control) 또한 이론 검증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행결과 관련된 기술공학적

차원에서 통제는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과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과학에서의 설명은 인과적 설명(explanation)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적 설명만이 과학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설명은 아니다.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인과적 설명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적 설명이 부각되어 있을 따름이다.

결국 과학은 연속적으로 이론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고 여타 과학적 절차와 과정들은 이론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과 정확성을 검증해 나가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정된 관점'에 대한 많은 비판들은 이론화하는 활동으로서의 과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중간 과정들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이론을 구성하고 또 구성된 이론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과 전략들이 동원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구성해낸 이론이 얼마나 실재를 드러내고 잘 설명해 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어떤 이론이 검증될 수만 있다면 그 이론속에 객관적으로 관찰 불가능한 '내면적 상태'를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 수량화된 자료이외에 질적인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도 없다. 사례수가 하나인 단일 피험자 연구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단지 신뢰로운 판단을 위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가능토록 하기만 한다면 단일 피험자 연구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해 말하면 이론구성과 구성된 이론에 대한 검증이 과학적 활동의 핵심이다. '인정된 관점'은 바로

이 과학의 핵심적 활동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인정된 관점'에 입각한 탐구방식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이를 대체하거나 퇴장시킬 탐구 방식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의 세계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경쟁력과 생존력이 있는 탐구방식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정된 관점'에 입각한 탐구 방식이 현재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이는 여타 탐구 방식들이 아직도 이를 대체할 만한 시장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인정된 관점'이 과학적 활동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접근 방식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Dewis의 견해이다.

Strong(1991) 역시 '인정된 관점'을 옹호하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과학은 일종의 순환과정을 거쳐 발전한다는 순환론을 주창하고 있다. 과학에는 발견의 맥락과 검증의 맥락이 있다. 현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모종의 이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과 검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발견된 이론의 타당성을 따져나가는 과정이 그것이다.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던 과학은 이 순환적 고리를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면서 정합성 있는 지식을 축적해 나간다. 소위 '인정된 관점'은 이 단계들 중에서 특히 이론 구성과 검증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최근 상담학의 연구들은 '관찰'하고 '기술'하는 발견의 논리(Greenberg & Pinsof, 1986)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소박한 경험주의(Strong은 상담학의 방법론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발견-지향적 접근을 이

렇게 부르고 있음)에 입각해서 수 많은 사실들을 발견해 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정합성 있는 이론으로 체계화되지 않는 한 단지 잡동사니 지식에 불과할 따름이다. 상담 연구에서 발견한 많은 사실들이 일관성있게 축적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론의 결핍에 기인된 것이다. 과학적 활동의 핵심은 이론 구성에 있다. 상담의 연구에서 과학적 진전이 더딘 것은 그동안 채용하였던 '인정된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발견해낸 사실들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다. 바로 이론지향적 과학의 중요성을 경시한 탓이 크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상담연구는 발견-지향 보다는 이론-지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Strong의 주장이다.

결국 Dawis나 Strong은 '인정된 관점'을 비판하는 것은 과학적 활동의 기본 목적, 즉 이론 구성과 이론 검증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데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잘못된 것은 '인정된 관점'이 아니라 과학의 본질을 착각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오해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인정된 관점'을 옹호하는 입장과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정밀히 검토해 보면 이들의 입장 차이가 단순히 과학 활동에 대한 견해차 이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일찌기 Wittgenstein (1953/1968)은 심리학에서의 혼란과 비생산성은 심리학이 역사가 짧은 학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심리학이 일종의 개념적 혼란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자연과학계와 심리학계는 분명히 다른 언어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세계관, 인간관, 과학관, 그리고 설명 모델은 분명히 구분된다. 그런데도 심리학자들은 이 두 언어체제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의 언어체계 내에서 획득된 통찰이 여타 다른 언어체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탐구 방법은 탐구하려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과학적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심리학은 무차별적으로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고유하게 탐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자연과학적 방법의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 탐구 문제에 적합한 방법은 어떤 것들인가를 따지는 일이라는 논리이다.

탐구 방법에 관한 두 입장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탐구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인간관의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탐구 대상으로서의 인간 현상이 물리적인 자연 현상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인간 현상은 자연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인정된 관점'이 전자의 가정 위에 서 있다면, 상담 연구방법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입장은 후자의 관점 위에 서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자의 인간관은 어떻게 다른가? 특히 인간 현상의 고유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강조하는 인간 영역의 독특한 특징은 어떤 것들인가?

Polkinghorne(1984)은 자연과학적 방법으로는 의미있게 포착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먼저, 인간은 하나의 조직적인 체제라는 점이다. 체제로서의 인간은 분리된 요소들이 더해진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하나의 체제는 분리된 요



소들을 모두 모아 놓은 것 이상이다. 전체를 구성 요소로 분리하고 분리된 요소들이 형성하는 관계를 통해 전체를 파악하려는 방식은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기능하는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맥락관계 속에서 그 체계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밝히는 문제이다. 둘째, 인간 현상은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인간은 고정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맥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인간의 어떤 특성을 그 내연과 외포가 분명한 명확한 변인으로 정의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분명한 조작적 정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량화 작업을 시도하는 일은 오히려 인간 현상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셋째, 인간 현상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계속적인 흐름 속에서 변화, 발전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맥락과 역사를 간과해서는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다. 시·공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수행된 연구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부분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산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넷째, 지식을 추구하는 활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인간 현상이다. 연구자나 연구대상자는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지식을 추구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연구자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지만 연구대상자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조작되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인간 현상 바깥에 인간을 탐색할 절대점이라는 것은 없다. 더우기, 인간이 자신을 연구하여 얻은 지식은 다시 환류되어 인간이 탐구하는 대상(즉, 인간) 자체를 변화시킨다.

인간 현상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지고 불확정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연유한다. 다섯째, 인간 현상은 감각적 관찰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인간 현상에는 항상 의미가 스며있으므로 외현적으로 드러난 행태는 반드시 해석과 추론을 요구하게 된다. 내성법이 모종의 의미있는 보고를 해 줄 수는 있지만, 무의식적 왜곡이라든가 문화의 영향 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의미가 축재되어있는 인간 현상은 의미를 배제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Howard(1984)는 Harre(1974, 1980)의 연구를 인용하여 자연과학적 방식에 의해 탐구될 수 없는 인간 현상으로서 인간의 자기주도적 측면(personal agency)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일상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인간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과적 힘을 분석하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언어사용자가 지닌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행위의 주도자일 뿐 아니라, 감시자이며, 비판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 자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내용은 그의 행위를 산출해내는 중요한 인과적 요소이다. 인간이 어떤 활동을 지속하거나 또는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행위의 주도자로서의 인간은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과 장면에 어울리는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다른 역할들을 채용한다(예를들면, 아들로서, 선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주인으로서 등등). 이처럼 어떤

행동을 규율하는 특정한 규칙들은 그에 걸맞는 역할과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순차적으로 볼 때 어떤 행위는 이를 규율하는 규칙들로부터, 그리고 각각의 규칙은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들로부터, 그리고 이 역할들은 자기의 행동을 주도하는 책임있는 인간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인간 행동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누고 통계 분석을 통해 정해진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실증적 접근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평할 수 있다. Kelly(kelly, 1955; Bannister & Fransella, 1980)의 ‘과학자로서의 인간’, Bandura(1977)의 ‘자율-조정 모형’, Rogers(1975)의 ‘만발기능인’ 등은 모두 인간을 능동적인 자기-주도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개념들이다.

이 밖에도 자연현상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인간은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자신이나 외부 환경 세계에 적극적인 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Lincoln & Guba, 1985), 인간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행위를 규율해 나가는 목적 지향적인 존재라는 점(Hoshmand, 1989; Lincoln & Guba, 1985), 인간에게는 객관적인 법칙으로 쉽게 감환할 수 없는 주관적인 측면의 지식(예를들어 사적 지식, 통찰 등)들이 있다는 점(Howard, 1986),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고 해석하는 존재라는 점(Hoshmand, 1989; Maher, 1985),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다는 점(Howard, 1984; Patton, 1984) 등이 그것이다.

‘인정된 관점’에 입각해 있는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에 대해 인간 현상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대안적 연구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대안적 연구 패러다임은 인간관에 대해서 뿐 아니라 연구의 목적, 연구 과정, 연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연과학적 패러다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새 연구 패러다임에 속하는 모든 방법론들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새 패러다임에서는 ‘이해’와 ‘의미의 조명’ 등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연구하는 방법 역시 해석하는 과정을 강조하게 되고 이를 위해 연구자는 탐구 대상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서 인간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따지려고 한다. 탐구 과정에서는 이론검증과 증명보다는 현상에 대한 기술과 새로운 발견을 강조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태도는 개방적, 탄력적이며 때로는 특정 이론에 입각하지 않은 무이론적 경향을 띠기도 한다. 여기서 연구자는 하나의 ‘도구’로서 참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또 연구대상과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자는 공동연구자로 취급되는 경향도 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고 비착취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연구 과정은 직선적(linear)이지 않고 유기적, 창발적(emergent)인 특색을 띤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간의 의도와 행위가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탐구의 구조상, 일관된 탐구 절차가 기대되지도 않는다. 자료수집을 위한 전략과 절차에서는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적이며, 수량화된 접근이 아니라 질적 접근이라는 특색을 보인다. 분석 방법으로는 의식에 도달하려는 현상학적 시도,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체험을 분석하기 위한

해석학적 시도 등이 주로 사용된다.

Lincoln과 Guba(1985)는 인간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하는 연구의 실체는 전통적인 방법과 현격히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 패러다임이 갖는 실제 연구상의 특징을 14가지 경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자연스런 배경(맥락)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 연구자 자신을 탐구의 도구로 삼는 경향, 명제적 지식은 물론 사적 지식(tacit knowledge)을 활용하려는 경향, 질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향, 목적을 염두에 둔 표집을 하는 경향, 귀납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경향, 경험적인 근거를 튼튼히 갖고 이론화하려는 경향, 사전에 미리 연구 설계를 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창발적으로 설계를 구성해 나가는 경향, 연구대상자와 협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 과학 기술 보고 양식을 따르지 않고 사례 연구 보고 양식을 따라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향, 일반적인 법칙에 의존하지 않고 개성기술적인 특징에 따라 자료와 결과를 해석하려는 경향, 발견한 사실을 잠정적,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려는 경향, 연구가 밝히려고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 경계를 한정하려는 경향,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밝히기 위하여 연구 문제에 적합한 증거를 사용하려는 경향 등이다.

지금까지 인간관과 연구 실체의 이면에 깔린 기본 가정, 전체, 방법과 절차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학적 방법론과 대안적 방법론을 비교해 보았다. 두 가지 연구 패러다임은 그 기본 철학과 탐구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 패러다임의 우수성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연구가 이루어지

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런 질문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탐구 방식 자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두 가지 패러다임은 모두 고유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구하려는 문제의 종류와 성격을 기준으로 삼을 때 어떤 패러다임이 보다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물리적 개념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신체적 특성은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연구대상자가 개인적으로 부여하는 의미세계의 탐색은 대안적 패러다임에 입각해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담학은 인간의 어떤 측면, 어떤 특성을 주로 탐구하려고 하는가? 상담학에서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연구 패러다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Manica와 Secord(1983)는 인간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각각의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심리학적 탐구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실증주의에 입각한 실험심리학은 사람의 신경생리학적, 지각적, 인지적 특성 등등의 구조나 기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사회심리학은 개인적 행동과 사회구조간의 상호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속에서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줄 것이며, 마지막으로 자서전적/해석학적 접근은 각 개인이 고유하고 개성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 세 가지 접근 중에서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오던 자서전적/해석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이들의 분류 항목 중 둘째와 셋째에 해

당한다고 보면, 실증적 패러다임 보다는 대안적 패러다임이 상담연구에 기여할 바가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이 꼭 의미와 해석에 관한 것들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의미나 해석에 관련된 사항들도 경우에 따라 수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증주의에 입각한 자연과학적 접근이 상담에서 무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상담학에서는 자연과학적 접근과 대안적 접근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소위 상담학에서의 절충적 인식론(eclectic epistemology)을 주장하는 학자들(Borgen, 1984)은 이같이 두 가지 패러다임의 상호 보완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안적 방법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Gelso(1979, 1982, 1991)도 이 입장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기, 다양해지는 것은 상담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상담 연구의 전망과 관련시켜 볼 때 어설픈 절충주의는 당분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와 실천간의 괴리현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담학계에서는 당연히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 상담학계에서 대안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방법들은 전통적인 자연과학적 방법론들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학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증주의에 입각한 연구들이다. 상당히 많은 경우, 탐구 문제의 성격상 대안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실증주의적 접근을 고집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국내의 학위논문들을 검토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수량화된

자료와 통계분석을 주요 분석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실증적인 연구 전통의 뿌리가 깊게 스며있다. 물론 이렇게 연구한 결과들이 상담의 실제에 효과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든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연구자 스스로도 자신이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실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가 상담의 실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접근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담학을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의미를 주고 받는 과정을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이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여겨질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패러다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다. 상호보완적 조화는 두 입장이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비로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상담 활동의 본질을 적절하게 규명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법들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할 상황이다. 상담 연구방법론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대치하자는 앞에서의 Goldman(1976), Lincoln과 Guba(1985)의 주장이 타당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탐구문제에 맞추어 연구 방법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담 연구에서는 대안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주고받는 의미의 세계는 그에 걸맞는 분석틀을 사용할 때라야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 견해가 틀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상담 연구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대안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야 한다. 한 걸음 양보를 하여 절충주의

적 인식론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차별적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 상담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요 탐구 방식은 대안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며,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은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실증주의적 접근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워낙 자연과학적 실증주의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서 여타 접근법들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자는 의미이다. 대안적 패러다임이 상담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때 비로서 두 패러다임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새로운 상담 연구방법들

상담학의 발달과 더불어 상담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방법들 역시 발전해 왔다. 특히 앞에서 논의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은 여러가지 다채로운 방법들을 출현시켰다. 실증적 또는 양적 연구방법들 중 다른 서적이거나 논문들 속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는 방법들은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근래 새롭게 등장한 연구 방법들, 특히 대안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방법들(질적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도록 한다. 각 연구 방법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 1. 실증적(양적) 연구방법

상담연구에서 실증적(양적) 분석방법이 비판을 받아오던 커다란 이유들로서 일원변량에 입

각한 단순한 연구설계와 분석절차, 그리고 상관 자료로부터 인과적 설명을 추출해 내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복잡한 상호작용의 세계를 지나치게 단순화된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담의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과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애매한 연관성을 제공하는 데서 그친다는 점 등이 비판의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보다 세련된 방법론적 전략과 고급 통계 분석방법이 상담 과정을 분석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는 1987년 Wampold를 초빙 편집자로 삼아 상담심리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통계적인 기법들을 특집으로 소개하고 있다. 각각의 논문은 특정한 통계 기법을 활용한 상담 분석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Wampold와 Freund는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Porter와 Raudenbush는 공변량분석(anlysis of covariance)을, Betz는 변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Hasse & Ellis는 중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Tinsley와 Tinsley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Fassinger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Edgington은 무선회된 단일피험자 실험과 통계검증 방법(randomized single-subject experiments and statistical tests)을, 그리고 Marasculio와 Busk는 위계직선 모형(loglinear models)을, Borgen과 Barnett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Dewis는 다면적 척도화법(multidimensional scaling)을 이용하여 상담을 분석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1987년도 이후 상

담 전문학술지들을 조사해 보면 여기에 소개된 분석 방법은 물론 여타 고등 통계 기법을 사용한 논문들의 수가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분석기법은 여러가지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된 변인들간의 인과적인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특징 등을 장점으로 삼는다. 앞으로도 실증적인 연구전략이 발달하고 새로운 고급 통계 기법이 등장함에 따라 상담 연구에 새로운 실증적 방법론이 적용될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1) 연계분석(sequential analysis)

대인간 상호작용을 전문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개발된 분석 방법으로 연계분석이 있다. 연계분석은 원래 순간 순간 일어나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근래 상담 과정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연계분석은 상담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빈도분석이나 성과분석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연계분석은 상담자-내담자 행동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 분석 단위들간의 연계적인 관계에 대한 미시적 정보, 그리고 분석 단위와 상담이 지향하는 결과지점 또는 목표와의 연관성 등과 같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연계분석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끼치는 일방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상담자-내담자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양방적인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자-내담자의 상호성을 수량적인 관계를 통해 밝혀내려는 것이다. 상담에서의 연계분석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과 비언어반응 모두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비언어적인 반응은 유목, 단위화가 쉽지 않아서 별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 연계분석의 절차는 연계분석을 위한 자료화 과정과 분석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자료화 과정은 다시 녹음 또는 녹화, 코딩체계, 녹음 자료의 축어, 코딩 단위 나누기, 코딩으로 세분된다(김계현, 1991).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연계분석의 모형과 분석 기법에 따라 달라진다. 박성희(1994)는 연계분석의 모형을 Markov 연쇄모형, 지연 연계 분석(lag-sequential analysis), 정보모형, 비모수적 모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계분석은 두 행동간의 연계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로 두 행동 이상의 연계적 관계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상담에서 연계분석의 등장은 양적인(실증적인) 연구가 대안적 패러다임인 질적 연구의 비판을 수렴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2) 단일 사례 실험연구법(single case experimental analysis)

단일 사례 실험연구법은 한 개인을 상대로 어떤 처치를 하거나 하지 않는 두 조건을 부과한 뒤 이 두 조건 사이에 나타나는 개인내 차이를 관찰하여 특정 처치의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방법이다(권 정혜, 1991). 전통적으로 흔히 사용해 오던 집단간 비교연구와 단일 사례 실험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집단간 비교연구는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적 반응을 바탕으로, 처치 전후에 발생하는 사람들의 반응 변화를 탐색하려고 하며, 주

요 분석 수단으로 통계적 검증에 의존한다. 연구 설계와 절차도 사전에 상세하게 계획된다. 이에 비해 단일 사례 실험연구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주요 관심 사항으로 하여, 그 사람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반복 측정을 통해 상세하게 드러내려고 하며, 통계적 검증에 크게 의존하는 대신 임상적 유의미성을 중시한다. 연구의 설계와 구체적인 절차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다. 단일 사례 실험연구의 일반적인 절차는 측정방법의 선택, 기저단계의 설정, 평가할 처치의 상세화, 설계의 선택, 처치효과의 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 사례 연구법에서 사용하는 연구설계는 크게 ABAB(Reversal design)설계와 중다기저선설계(Multiple-Baseline design)로 구분할 수 있다. ABAB설계는 처치를 시작하고 중지하는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처치 유무에 따른 행동변화의 존재 여부를 관찰하려는 것이다. 중다기저선설계는 서로 다른 여러 시점에서의 처치를 기저선과 비교했을 때 일관성 있는 행동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처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설계를 말한다. 처치효과의 평가는 시각적 검색, 통계 검증, 그리고 임상적 준거를 이용한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통계 검증 방법에는 t 검증과 F 검증, 시계열분석법 등이 활용된다.

### 3) 시계열 분석(time-series analysis)

시계열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동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려는 방법으로 실험연구와 관찰연구에 모두 쓰일 수 있다. 이 분석은 특히 두 사람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예를들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돈'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아내와 남편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시계열 연계분석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자료를 사용한다. 첫째는 사건 연계 자료(event sequence data)이다. 이 자료는 포괄적이고 일련의 관찰된 사건들을 배타적인 분류목에 따라 코드해 놓은 것이다. 둘째는 시간-사건 연계 자료(timed-event sequence data)로서 단순히 사건의 연계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속된 시간까지 포함한 자료를 말한다. 만일 네 가지 행동을 1, 2, 3, 4라고 코드해 놓았을 경우, 사건 연계 자료를 12321413이라고 표현한다면 시간-사건 연계 자료는 111223333211444133으로 표현될 수 있다. 셋째, 시간-중다-사건 연계 자료(timed-multiple-event sequence data)는 어떤 시간 단위 동안에 일어나는 행동들을 동시발생적, 비배타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최종적으로 이 자료들은 시계열이라고 불리우는 비-유목자료(일종의 연속자료)로 변형된다. 이 변형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 분석이 시작되는데, 분석의 종류는 시간 영역 분석(time domain analysis)과 빈도 영역 분석(frequency domain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 영역 분석이란 '과거(시간적으로 앞에 일어난 일들)를 기초로 하여 어떤 하나의 계열(series)이 어느정도나 예측 가능한가?'를 따지는 분석으로서 이를 '자동회귀에 관한 의문'(autoregressive question)이라고도 한다. 빈도 영역 분석은 '계열내에서 어떤 진폭(변화 또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려고 한다. 분석은 단일 계열(one series)과 교차 시-계열(cross time-series)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교차

시-계열은 구체적으로 교차-스펙트랄 방법, 국면 스펙트럼 방법을 통하여 분석된다(Gottman, 1979). 두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분석은 교차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 4) 모의상담 연구법(analogue experimental analysis)

모의상담 연구는 실제 상담 상황과 유사한 조건을 설정해 놓고 연구자가 탐구하려는 특정 변인들을 조작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려는 일종의 가상 실험연구를 말한다. 이 방법은 한때 '축소 모형치료'(Goldstein, Heller, & Sechrest, 1966) 또는 '단순화 전략'(Bordin, 1965)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 모의상담 연구는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 상담 상황과 유사한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연구 변인 이외의 잡음 변인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한다. 실제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개인적 변인, 상담과정 변인, 상담환경 변인, 배경 변인 등등 여러 변인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변인 또는 특정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가 어렵다. 반면, 모의상담 연구는 연구자가 탐구하기 원하는 변인과 관련된 실험조작과 통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모든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실제의 상담에서 실험을 하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실제적 장애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모의적인 상황을 구성해서 연구한 것이므로 일반화의 수준이 제한된다는 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내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 복합적인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연구함으로써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릴 가능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모의상담 연구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는 수준, 분석할 회기수의 선택, 탐구하는 변인 등등에 따라 여러가지 연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Munley(1974)는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에 실린 모의상담 연구들을 개괄한 후에 연구 유형을 다섯가지 종류로 나눈 바 있다. 모의상담 연구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녹음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녹화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실제 상담자를 훈련시켜 실험하는 방법, 지면으로 상담자를 소개한 후 실험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 5) 포인트 평가 기법(point estimation technique)

포인트 평가 기법은 행위 주체자로서의 개인의 자기-결정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분석기법이다. 종전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그의 자기-결정력을 잊혀두고, 외부적인 작용에 기초한 인과적 영향력을 검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인과적 결정력을 검증하려고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간 행동을 나타내는 변량의 30% 정도 밖에 설명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여러 변인들을 동원해서 분석해보아도 결과는 그리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명하지 못하는 70% 이상의 변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돌파구를 Howard와 그의 동료들(1991)은 인간 행위를 결정짓는 주체, 그리고 사회과학에서의 예측의 성격에 대해 생각을 달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 행동 중 자유의지에 따른 자기-결정력이 작용하는 변량을 확인해 낼 수



있다면,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힘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예를들어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데 피험자의 자기 의지가 30% 작용하고, 여타 외부적인 변인이 30% 작용한다면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60%로 증가하게 된다(물론 학자들간에는 이 두가지 결과가 쉽게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포인트 평가 기법의 구체적 절차는, 먼저 행동의 기저선을 설정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특정 행동의 빈도를 확인하고, 일정한 시점에 개입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 행동의 횟수를 결정케 한 다음, 원래 기저선에서 반응하던 행동 빈도와 개인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후 반응한 행동 빈도를 비교하여 자기 의지가 작용한 정도를 측정해낸다. 연구 설계를 조금 더 세련시키면, 구체적으로 자기-의지를 발동시킨 기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Howard, et al., 1991). 이 방법은 개인과 집단 연구에 모두 쓰일 수 있고, 종래에 무시되어 오던 인간의 주관적 측면을 실증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 연구에 활용될 가능성이 큰 기법이라고 할 것이다.

## 2. 대안적(질적) 연구방법

상담학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새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있는 탐구는 소위 과정연구(process research)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정연구는 종전의 성과연구(outcome research)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과정내에서 순간

순간 일어나는 사건들의 상호관계를 탐색하려고 한다. 성과연구가 상담과정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최종적인 변화 또는 효과에 대해 탐색한다면, 과정연구는 어떤 상담회기내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변화의 순간들을 포착하려고 한다. 물론, 과정과 성과를 상호배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얻어내려는 결과가 상담회기 전체(big outcome)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의 작은 시점(small outcome)을 대상으로 한 것이냐에 따라 연구자들은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Hill과 Corbett(1993)는 과정연구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상담연구를 세 가지 발전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940년 경에서 1970년에 해당하는 첫 단계에서는 소위 자연스런 과정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Rogers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상담학자들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이 요소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하고 척도에 나타난 결과와 내담자의 경험 내용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런 방법을 통해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접근이 지나치게 미세한 부분에 집중되어 상담의 실제에 별 효용이 없는 결과들을 양산해내게 된 점, 과정연구의 속성상 과정에 작용하는 모든 복합적인 자료를 동시에 분석해야 하는데 이를 다루어줄 컴퓨터의 역량이 부족하였던 점, 그리고 연구자들이 일련의 지속적인 계획에 따라 과정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두 연구를 해내는 것에서

그치려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기 과정연구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게 되었다. 두번째 단계인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과정연구 대신 모의실험 상담연구가 인기를 끌게 된다. 자연주의적 과정연구(naturalistic process study)에 식상해 있던 연구자들은 과학적 엄격성을 보장하고 인과적 설명을 가능케 하는 실험연구라는 점에서 모의 상담연구를 환영하게 된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상담연구가 모의 실험 설계를 활용하였다는 것은 이 과학적 실험 설계가 매우 인기가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의 실험연구는 외생적 변인 전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 실제 상담에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 임상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자극단서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 등등, 실제 진행되는 상담을 연구하는 전략으로서는 문제가 많다는 단점들이 지적되면서 퇴조하기 시작한다. 상담 과정을 탐구하려는 여타 대안적인 방법론들이 본격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는 상담의 내부적 과정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뒤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체험적 연구, 연계분석, 생활사 연구법, 담화분석, 현상학적 분석, 자서전 분석 등등 각종 분석 기법들이 상담 과정을 탐구하는 주요 연구방법들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 방법들이 개인의 주관적인 정보를 획득하려는 소위 사례지향적, 질적(qualitative), 자연적(naturalistic) 탐구 방식이라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본 절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방법론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한 가지 언

급해 둘 것이 있다. 흔히 탐구 방식을 대비시켜 설명할 때, 양적연구 대 질적연구, 실험실 연구 대 현장연구, 실험연구 대 상관연구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말을 양적 연구, 실험실 연구, 실험연구는 일률적으로 질적연구, 현장연구, 상관연구와 대립되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오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실험실연구 대 현장연구는 연구가 수행되는 맥락이나 배경이라는 차원에서, 실험연구 대 상관연구는 실험 설계의 차원에서, 그리고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는 연구의 인식론적 가정의 차원에서 대비시킨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험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거기서 얻은 자료는 질적 방법에 의해 분석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 대비 개념으로 사용한 질적, 양적 연구는 수량화라는 차원에서의 구분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 1)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현상학적 연구는 일반적인 탐구의 영역으로 인간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 활동을 구성하는 체험의 의미를 기술하고 조명하려고 한다. 이 방법은 주로 언어적 자료에 의존해서 의식과 체험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해석적 작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해석학과 동일시 되기도 한다. 현상학적 탐구는 해석적 과정을 거쳐서 연구대상의 의식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verstehen)에 도달하려고 한다. 그러나 의식과 체험 내용은 복합적인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의 의식 내용은 연구자와의 대화속에서 새롭게 구성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식과 체험은 살아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살아있는 의식과 체험을 어떻게 포착하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현상학자들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상학자들은 개인의 삶을 시간(시간성), 공간(공간성), 그리고 그 개인이 소속해 있는 사회적 세계(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현상학적 탐구는 연구자 자신의 선개념과 편견을 가동시키지 않은 개방적 태도, 즉 소위 괄호화(bracketing)라고 불리우는 과정으로 특징 지워진다. 실재는 여러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지닌 다면체로 파악되며, 모든 자료와 모든 시각은 수평화(horizontalization)라는 개념에 의해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구자는 가능한한 모든 형태의 사전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괄호속에 자신의 주관성을 묶어 놓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구대상자 안에 거하며(연구대상자와 같은 입장에서) 그가 보고하는 체험에 몰입하려고 한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간의 작업관계는 상호 협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Fischer, 1980).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연구자는 예비적인 자기-반성의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것 역시, 괄호화와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이론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은 질적 면접이다(Becker, 1986). 이 면접의 과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담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참여관찰자로서 연구대상이 보고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해석할 뿐 아니라, 표현상 애매 모호한 점을 명료화하면서 연구대상이 체험한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은 보통의 상담 과정에서 정

보를 수집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질적 면접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해체화과정(deconstructing)과 재구성 과정(reconstructing)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때로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염두에 둔 채 그의 의식 내용을 조각조각 분리, 해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주제나 논리에 따라 재구성해 보기도 한다. 다시말하면 연구자는 상상적 수법을 동원해서 연구대상의 심리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시도한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현상학적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의식 내용과 체험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현상학적 자료 분석과 해석학적 분석의 차이는 전자에서는 연구자와 피연구자가 면담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분석할 자료를 함께 생성해 내는 반면, 후자에서는 분석할 자료가 사전에 주어진다라는 점에 있다.

## 2) 해석학적 연구(hermeneutical study)

해석학은 의미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질적 접근이다. 모든 체제는 내재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문제로 집중된다. 해석학은 특히 하나의 의미체제를 바탕으로 의견상 차이가 있거나 심지어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의미체제를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Ricoeur(1970)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자연언어는 의미와 관련지어 볼 때 과소 또는 과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하나의 낱말(또는 상징)은 여러가지 중첩된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에 열려있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시인의 관점과 실증적 과학자의 관점을 동시에 소유할 필

요가 있다. 과학자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의미가 과대 추정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며, 시인은 과대 해석되는 의미의 힘에 의존한다. 따라서 해석학적 연구자는 과학의 방법론적 엄격성과 더불어 시인의 통찰과 창조적인 힘을 추구하여야 한다. 해석학적 연구자는 해석학적 방법을 통하여 어느 한 가지 현상을 고립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여타 다른 과정들과의 맥락관계 속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이는 마치 어떤 나무에서 시작하여 그 뿌리를 따라 땅속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뿌리가 땅 속의 물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근처에 지나가는 시내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사건들(things)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해석학의 목적은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맥락에 바탕을 둔 인식과 조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석학적 탐구는 연구하려는 특정 용어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나서 다양한 '맥락들'로 초점을 옮겨간다. 예를들어 불안을 탐구한다고 할 때, 연구자는 먼저 '불안'이라는 용어 속에 담긴 의미를 탐색한 후에 불안과 관련되는 상이한 체험들을 검토한다. 자료수집은 해당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가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도 그것이 터해 있는 '맥락 자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내용을 뜻할 수 있다. 이렇게 맥락 자원을 검토해 가다보면, 그 용어에 대한 의미가 확장되어 다수준적, 다차원적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불

안의 예를 계속 들면, 불안은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 생리적 측면 등 다른 맥락 속에서 기술될 수 있다. 이를 의미의 확장 단계(stage of expanding)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그 현상의 총체적 특성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탐구해서 밝혀내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부분'이 항상 남아 있게 되는데 연구자는 이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용어의 의미를 확장하는 단계가 끝나면, 세분화의 단계(stage of differentiation)가 시작된다. 이 지점에서 연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체험 또는 반대되는 체험들을 검토한다. 불안의 예를 들면, 두려움, 고요함, 흥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자료분석 단계에 이르면 앞에서 세분화한 체험들을 구체화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친다. 불안과 흥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긴장되는 것이 두 체험의 유사점이라면, 차이점은 부정적인 가능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불안이고 긍정적인 가능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흥분이라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체험의 의미를 구체화해 나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통찰적 이해 단계(stage of intuitive understanding)에서는 관련된 많은 체험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맥락의 망속에서 드러나는 그 체험(예컨대, 불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해석학적 탐구는 연구대상의 구체적 체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가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조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학적 탐구의 결과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 또는 이해의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Barrell, et al., 1987). 해석학적 과정에서 볼 때, 새로운 이해는 새로운 질문을 생성시키고 따라서 그 과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탐구 과정이 이어지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해석학적 탐구는 끝이 없는 연구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법정 연구모형(legalistic model)

법정 연구 모형은 상담을 통해서 일구어낸 변화가 타당한 것인가를 따지기 위하여 이론적 입장이 서로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맞붙여 놓는 방법이다(Levine, 1974 : Resnikoff, 1978, 1982). 법정 모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방법이 마치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여러가지 증거들의 경중을 신중히 따져가며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모형에서, 각각의 전문가들은 하나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집단으로 모여서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가며 토론을 벌인다. 각각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리라고 예상되는 모든 것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치료적 동맹관계, 기대, 동기, 인구학적 변인들 등등이 모두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어떤 한 사람이 변화에 대해 설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여러가지 이론적 입장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변화에 대해 공통된 의견이나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조작적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

으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전문가들이 전혀 합의를 이루지 않거나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Neimeyer와 Resnikoff(1982)는 이 모형을 실험한 결과 생산적인 합의에 도달할 전망이 예상보다는 밝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 4) 생활사 연구(life history approach)

생활사 연구는, 사람에 대한 연구는 바로 그 사람 자신의 조망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이해할 때 가장 정확하다는 가정 위에 서있다. 개인의 객관적 행동 조차도 그 행위의 주체와 관련시키지 않으면 타당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살아온 생활의 역사를 검토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히 생활사 연구법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영향력을 탐색함으로써 횡단적 연구들이 빠질 수 있는 여러 함정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Denzin(1970)은 생활사 연구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먼저, '완전한 생활사'(complete history)는 한 개인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사람이 경험해온 모든 것들을 다루려고 하다. 이 방법이 연구자에게 주는 부담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화제중심 생활사'(topical history)는 그 개인 생활의 어떤 측면이나 화제(예를들어, 우울 증상, 적응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자살과 관련된 행동 등등)에 중심을 두고 생활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편집된 생활사'(edited history)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인생(예를들어, 총각 시절, 대학에 들어간 이후, 결혼생활 등)을 축약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편집된 기간 동안의 일들은 화제중심적으로 다

루어질 수도 있고, 완전한 생활사 처럼 다루어질 수도 있다.

생활사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 및 체험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서류, 사물, 문서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회계, 정치, 재판 등을 포함한 각종 공식적 기록 자료들은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특히 직업, 입원, 결혼, 이혼, 자살시도, 치료기관에 접촉한 기록, 약물과 관련한 체포 기록 등은 상담 연구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개인적 기록 자료 역시 중요하다. 자서전, 질문지, 면담, 언어적 반응에 대한 보고, 일기, 편지 등은 개인의 내면 상태를 풍부하게 드러내줄 소중한 자료들이다.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적 귀납 추리'(analytic induction)라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연구 가설을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제들을 찾으려고 한다. 이 방법은 하나 또는 부분적인 생활사를 바탕으로 전체의 경우에 적용할 만한 명제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사례, 그리고 각 사례에 속하는 事象들에 대한 탐구는 이전에 설정했던 가설을 타당화하거나 거부하는 중요한 자료원이 된다. 생활사 연구의 단점으로는 자료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자료수집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 구체적인 연구 가설을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Neimeyer & Resnikoff, 1982).

##### 5) 자서전 연구법(autobiographic study)

심리학 연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서전적 자

료를 사용해 왔다. 일찌기 Dilthey(Howard, et al., 1992)는 '자서전은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 최상의 형식'이라고 표현하여 자서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다. 그러나 자서전 연구는 상당 기간 침체해 있다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상담이 전개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담자가 자신의 인생과 생활에 대해 자전적으로 기술하는 장면을 항상 만날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첫 대면부터 내담자의 자기 이야기가 시작된다. 무슨 일로 상담실에 왔느냐는 상담자의 질문은 대개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현재 시달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생활의 이야기를 꺼내 놓게 한다. 상담시간 동안 내담자가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서전적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학의 연구에서 내담자의 자기 이야기에 대한 탐구는 별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바로 자서전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내담자의 자기 이야기의 타당성에 대해 염려를 해왔지만(Murray, 1938 : Runyan, 1982, 1990), 실제로 경험적 타당화를 시도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결국 자서전 연구법의 생명은 경험적 타당화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측정이론과 관련시켜 보면, 자서전 연구법은 타당도의 종류 중 특히 준거타당도와 구인타당도에서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준거타당도와 구인타당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자서전 연구법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Howard와 그의 동료들(1992)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자서전의 타당화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자서전, 또는 자기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정보를 바로 '인생의 주제'(life theme)라고 개념화한 이들은 자서전 분석과 여타 경험적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자서전 연구의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자서전 연구가 충분한 준거타당도와 구인타당도를 가질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서전 분석을 통해 발견하는 '인생의 주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질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자서전분석법을 옹호하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것이다.

#### 6) 담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

담화분석은 대화의 분석을 통하여 상호과정 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유활동의 구조를 탐색하려는 접근법이다. 이 분석방법의 목적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행동을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절차를 기술하는 것이다(Heritage, 1988). 분석과정은 철저히 자료에 입각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선이론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료속에 나타나는 상호작용 현상을 뜯어내려고 한다. 담화분석은 말에 대해서 뿐 아니라 말의 부수적인 특징들도 연구 대상속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즉, 대화를 하면서 주고받는 다양한 행동들이 모두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담화분석을 이용한 상담사례의 분석은, 첫째, 분석할 상담 회기를 선정하기, 둘째, 선정된 상담 회기를 녹음 또

는 녹화하기, 셋째,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기, 그리고 분석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박 성희, 1995). 사실상 '분석' 단계는 앞의 네 단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며, 각각의 단계는 일종의 순환적인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담화 분석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상호작용 과정 전체를 별도의 침묵없이 실제 그대로의 자료로 재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변화의 과정 또는 상호작용의 유형을 밝혀내는 일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에게 실천상의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상담활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 7) 체험적 접근(experiential approach)

체험적 접근은 내담자가 겪는 경험 내용과 과정을 명료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먼저 직접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경험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요인들이 그 체험이 일어나게 한 필요 충분 조건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험적 접근은 내담자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체험을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창출해 내는지를 명료화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각성(self-awareness)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 방법은 처음 논의된 이후 여러 영역의 문제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왔다(Price & Barrell, 1980; Barrell & Richards, 1982; Price & Barrell, 1984 등등).

일반적으로 체험적 접근은 일반화가 가능한 타당한 합의(공동탐구자들과 함께)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 개인이 동료 공동탐구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체험의 구조를 제시한다. 둘째, 공동탐구자들이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한다. 셋째,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체험내용을 묘사한 부분으로 돌아가 해결한다. 넷째, 목하 탐구되고 있는 체험의 구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다. 이러한 과정을 활용하는 목적은 어떤 문제에(예컨대, 불안) 대해 공적이고 일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체험적 접근은 어떤 문제(불안)에 대하여 탐구하기를 원하는 공동연구자들로 형성된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동연구자들은 자신들을 문제(불안)를 느끼거나 또는 문제(불안)를 느낄만한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 또는 과거로부터 그 문제와 관련된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재경험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하기도 한다. 체험내용을 기록한 후에는 각각의 참여자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석에 임한다. 분석을 하면서 참여자들은 자기가 체험한 내용들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뽑아나가게 된다. 그 결과 일반화된 결론들에 도달하게 되면(예를들어, '나는 결과가 불확실할 때 불안을 느낀다') 집단 토의 과정을 멈추게 된다. 때로는 일반화된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구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듯 체험적 접근은 탐구의 방식일 뿐 아니라 탐구자가 직접 집단 과정에 참여하여 상담과정을 체험해야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8) 인공두뇌학적 접근(cybernetics approach)

인공두뇌학적 접근은 연구의 과정에 상담자와 연구자는 물론, 내담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Andreozzi, 1985). 우리가 탐구하기를 원하는 인간체제에 어떤 요소가 첨가됨에 따라, 우리는 바로 탐구하려고 하는 그 현상과 적극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거래들을 외생적인 변인이라고 간주하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연구 범위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내담자와 상담자는 상담관계 속에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변증법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두 사람 모두를(때로는 연구자까지도) 포함하는 탐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공두뇌학적 탐구는 어떤 체제를 구성하는 부분들과 전체, 또는 부분들간에는 상호 의존성 및 상보성이 변증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체제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요소의 변화는 전체의 변화를 야기시키며 정보의 환류 체제를 이용하여 자기조율적 통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능은 상담의 과정에도 그대로 작용한다. 상담자, 내담자로 구성되는 상담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하나의 체제로서 기능하므로 이 체제에 작용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있을 때라야 두 사람의 상호작용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자기-참조적 작용들에 대해 정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Kantor와 Andreozzi(1985)는 인공두뇌학적 접근을 이용하여 가족상담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임상적 실재를 이해함



에 있어 자기-참조적 사항들(self-referential operations)이 치료과정이라고 알려진 환류 회로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두개의 개념, 즉 경계 프로파일(boundary profile)과 형성된 구조 대 형성되는 구조(formed vs forming structures)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경계 프로파일이란 치료과정에서 작용하는 자기-참조적 작용들로서 상담자의 지각과 활동(또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형성된 구조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이론적 관점으로부터 파악하는 내용들이라면, 형성되는 구조는 상담자가 상담을 전개하면서 획득하게 되는 개인적인 설명체제 또는 실재 파악을 말한다. 이 두 개념은 상담의 연구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다른 두 개의 개념, 즉 상담자의 모형과 방법이라는 개념들과 짝을 이룬다. 인공 두뇌학적 접근은 상담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이 네 가지의 작용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양상과 전반적인 효과에 대하여 탐구하게 된다.

### 9) 과제분석(task analysis)

과제분석은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는 개인을 상세히 탐구하는 연구 전략이다. 과제분석은 과제 해결의 과정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제를 이해할 뿐 아니라, 해결과정에 대한 설명 모형을 구축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행동을 산출해내는 심리적 과정과 인간 체제에 대한 모형 구축이 과제분석의 목적이다. 진행중인 과정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둔다는 점 이외에도 과제분석의 몇 가지 특징은 특히 상담과 심리치료 연구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한다. 과제분석은 발견지향적 탐구방법으로서 관찰과 귀납적인 추론 전략을 강조한다. 연구자는 먼저 과제를 수행하는 개인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엄격한 관찰을 한 다음, 그 개인에 의해 사용된 여러가지 심리 전략들을 찾아내고 그 중에서 성공/실패로 이끈 전략의 특성을 점검한다. 과제분석적 접근은 연구대상을 외부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의 요구를 읽고 그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직해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개인이 채용할 수 있는 전략은 이러한 개인적인 파악의 과정에 의존해 있으며, 실제적인 행동은 그가 채용한 전략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고과정,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전략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행동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8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전문가가 묵시적으로 사용하는 인지 지도(cognitive map)를 명료화한다. 유의미한 치료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의 전문가들이 치료 또는 변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인지적 지도)를 명료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 지도는 내담자의 전략을 분석하는 지침으로 작용한다. 둘째, 분석할 과제를 선정하고 기술한다. 내담자가 겪는 문제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事象을 과제로 선정하도록 한다. 셋째, 선정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넷째, 이성적 분석(rational analysis)을 하고 수행할 일에 대해 도식을 그려본다. 연구자는 임상적 경험과 이론을 토

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할 내용을 생각해 보고 이를 도식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다섯째, 경험적 분석(empirical analysis) 즉 실제적인 수행 과정을 기술한다. 이때에는 가능한한 성공적인 해결에 도달한 수행 과정을 기술하도록 한다. 여섯째, 실제 수행하는 것과 수행 가능한 것들을 비교하며 모형을 구축한다. 일곱째, 검증한다. 이 단계에서는 앞의 6 단계를 거쳐 설정된 가설이나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필요하면 통계적인 검증 과정도 거칠 수 있다. 여덟째, 성과와 과정을 연관시킨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성공적인 수행과 장기적인 성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내담자를 변화시킨 치료적 방법과 치료 성과를 연결시키는 작업도 포함된다(Greenberg, 1992).

#### 10) 대인관계 과정 회상법 (interpersonal process recall: IPR)

대인관계 과정 회상법은 면담하는 과정을 녹화하고, 면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끝낸 면담 과정을 즉각적으로 되돌려 보여주는 특별한 면접 절차를 일컫는다. 연구자는 녹화된 테이프를 돌려 보면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경험과 지각 내용을 묻고, 내담자와 상담자는 이에 응답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나 상담자가 쉽게 잊거나 또는 망각해 버릴 상담과정에 대한 여러가지 인상, 지각, 반응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원래 Kagan(1975)에 의해서 구안된 이 방법은 상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시기(critical incidents)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Elliott(1979)는 상담이 끝난후 IPR을 이용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의 특정 진술이

도움이 된 정도를 평정하게 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진술과 도움이 되지 않는 진술들을 분석한 바 있다. Greenberg(1980)는 게슈탈트의 관점을 이용하여, 대화가 분리되거나 양극성에 도달할 때를 찾아내고 상담자가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분석하기도 하였다. Mahrer 등(1987)은 상담에서 치료적 효과가 있던 좋은 순간들을, Strupp Hadley, 그리고 Gomew-Schwarz(1977) 등은 부정적인 순간들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대인관계 과정 회상법은 상담과정을 연구하는 두 가지 흐름, 즉 현상학적인 접근과 객관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평정하는 접근을 결합하고 있다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이 방법을 통하여 순간 순간 이어지는 행동과 반응들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자료나 기록들로부터는 발견할 수 없는 주관적인 인상에 관한 정보들도 수집할 수 있다. IPR이 앞으로 상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이 방법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 관계를 탐색하는 도구로서 뿐 아니라 상담자의 실천적 기술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Elliott, 1986).

#### 11) 삼각측량법(triangulation)

동일한 현상을 탐구함에 있어 뿌리가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판단의 정확성을 점검하려는 기법을 사회학자들은 '삼각측량법'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거점들을 활용하는 군사 전략으로부터 빌어온 말이다. 기하학적 원리에 의하면, 여러 시각에서 관찰할 때 그만

큼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에서도 동일한 행동 변인에 대하여 상이한 종류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면 그만큼 판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용한 방법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면, 그만큼 얻은 결과의 타당성을 신뢰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사용한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때에도 삼각측량법은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이한 방법들이 산출해내는 새로운 자료들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삼각측량법은 동일한 현상을 여러 시각에서 점검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롭거나 또는 숨어있던 차원을 드러나게 하여 이해 수준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양한 방법들로 부터 수집한 자료들이 제시하는 결과가 수렴적이든 발산적이든 모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삼각측량법은 상담의 이론과 방법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이론에 대한 삼각측량법은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들의 입장을 비교,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에 유행하는 인지-행동 상담간의 논쟁을 예로 들어보자. 인지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지적 개입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공할 것이며, 행동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행동주의 이론이 더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논쟁한다고 하더라도 두 이론이 상호 만족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 이론에 대한 삼각측량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일련의 동일한 자료를 제시하고 각각의 이론적 접근이 이 자

료를 설명하는 역량을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주어진 자료에 어울리는 설명력이라는 차원에서 대안적인 이론들을 비교하여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보다 과학적 접근이라고 할 것이다. 방법에 대한 삼각측량법은 다시 집단내-방법 삼각측량법과 집단간-방법 삼각측량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집단내-방법 삼각측량법은 자료를 점검하기 위하여 동일한 하나의 방법내에 속하는 여러 전략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우울증 검사에 우울증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분리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는 동일 현상을 측정하는 척도들의 내적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집단간-방법 삼각측량법은 동일 현상을 탐구하는 여러가지 다른 방법들을 결합해 보는 것이다. 행동에 대한 관찰, 태도 측정치, 내담자의 주관적인 해석, 담화분석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주어진 탐구 문제에 대한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결과가 수렴적(동일하게)으로 나오면, 결과의 타당성은 그만큼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 그러나 연구 방법에 따라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탐구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Neimeyer & Resnikoff, 1982).

삼각측량법은 독자적인 연구방법이라기 보다는 여러 연구 방법들을 동원하여 얻은 결과의 확실성을 증명해 나가는 절차로 간주할 수 있다. 종전에 삼각측량법은 질적 연구 방법들을 통합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질적 연구방법 뿐 아니라 양적인 연구 방법까지도 포괄하는 통합 연구방법론으로 자

리잡고 있다. 상담 연구가 탐구하려는 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은 수많은 변인과 의미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탐구하려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탐구하는 방식 역시 다양할 필요가 있다. 삼각측량법과 같이 다양한 방법론들을 결합하여 탐구하려는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수준에서 이해하려는 노력들은 앞으로 상담연구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 맺 음 말

모든 학문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담학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은 다기, 다양할수록 좋다. 앞에서는 상담학의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되는 16개의 상담 연구 방법들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상담 영역의 내외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들을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소개한 16개의 연구방법들 중 5개는 실증적(계량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것이며, 나머지 11개는 대안적 패러다임(질적)에 입각한 것들이다.

실증적 패러다임과 대안적 패러다임은 분명히 구별된다. 이 두 패러다임은 그 기본적인 세계관, 신념, 형이상학적인 원리에서 뿐 아니라, 연구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상담학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어느 패러다임에 입각한 연구방법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부분적으로 상담과 상담학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행동주의적 입장에 서있는 상담자와 인본주의

적 입장에 서있는 상담자가 정의하는 상담은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각각의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연구방법도 같을 수가 없다. 또 연구방법은 방법 자체로서 절대적인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탐구하려는 문제의 성격에 비추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의 의문에 대한 일반적, 보편적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그러나 만일 탐구하려는 문제의 속성이 실증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실증적 방법론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상담학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탐구하려는 문제의 특성에는 아랑곳없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실증적 방법을 동원해 온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상담 연구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동안 사회과학 전반을 장악해온 자연과학적 실증주의 전통, 대안적 방법들의 부재, 대안적 방법을 활용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의 과다, 상담학자들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무관심 등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대안적 패러다임과 연구방법들은 상담 연구 활동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패러다임의 상호공존을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쪽에 편을 들어주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상담연구에서 탐구하려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상 대안적 접근에 적합한 것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더욱더 그렇다. 이 상적으로 보면 패러다임의 다양성(paradigm diversity)을 지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현실들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상담 연구방법론에서의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을 강하게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이 대안적 방법들에 치중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대안적 패러다임은 흔히 질적 패러다임이라고도 하는데, 앞 장에서의 논의를 정리삼아 질적 패러다임의 일반적인 특징을 간단히 요약해 보기로 한다. 질적 연구의 목적은 인간행동의 이면에 감추어진 생각, 느낌, 동기, 신념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세계에 대한 탐구를 지향한다. 실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질적 연구자는 내재자의 관점을 강조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절차를 관찰하거나 참여하는 직접 경험을 중시한다. 연구 과정에서 가치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연구 과정에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므로 억지로 가치중립을 표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를 포용, 해석, 이해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탐구 과정은 분석적, 개별적이라기 보다는 종합적, 총체적이며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보다는 새로운 개념을 탐색하고 발견하려는 발견지향적 성격을 띤다. 수와 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보다는 개인의 언어로 표현되고 보고되는 주관적 자료를 중시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연구자 자신을 가치롭게 여긴다. 자료가 수집되는 상황도 통제적인 조건보다는 자연발생적인 상황을 선호한다.

앞에 제시한 11개의 상담 연구방법들은 질적 패러다임의 특성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하는 상담의 질적 연구방법들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새로운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상담과정을 탐구하는 연구방법들이 다른 학문에 의존하지 않고 상담학 내에서 자체 생산되는 경향이 보인다. 종전의 상담 연구는 상담 이외의 영역에서 발전된 방법론을 상담 분석에 적용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실증적 분석 방법은 말할 것도 없고 질적 연구 방법들도 거의 대부분 다른 학문에서 빌어온 것들이었다. 그러나 앞의 체험적 접근과 과제 분석 등에서 보듯, 상담 과정의 고유한 특성을 내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접근 방법들이 상담학 자체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런 방법들은 앞으로 상담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상담과정과 연구과정을 통합시키려는 경향이다. 종전에 상담연구자는 상담과정 밖에 위치하였고 상담과정에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구자까지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맥락 자체가 달라지는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상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상담 실천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므로 아예 상담과정 속에 연구자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상담관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면서 동시에 상담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는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자가 되는 셈이다. 소위 맥락을 강조하는 연구들에서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인공두뇌학적 접근, IPR, 체험적 접근 등에서 이런 경

향을 발견할 수 있다. 세째, 탐구 대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치롭게 여기는 경향이다. 수량화가 가능한 자료는 물론 각종 언어적, 비언어적 자료, 공문서나 개인문서 등 수집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을 분석자료로 삼는다. 상담 과정에 생긴 모든 상호작용의 내용들은 물론이고 상담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의 배경, 생활사 등도 귀중한 자료로 다루어진다. 총체적인 인간 분석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네째,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합하려는 경향이다. 각각의 연구방법은 어떤 특정한 현상이나 문제를 분석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탐구하려는 문제의 속성에 따라 그에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상이한 방법들을 적용해 보아, 얻은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 방법으로 드러낼 수 없는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삼각측량법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질적 연구방법들의 통합 뿐 아니라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들의 통합에 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박 성희, 1995). 마지막으로 특정 이론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태도이다. 상담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의 순간 또는 문제해결의 순간을 무이론적으로 접근하여, 탐색하고 발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론을 구성하려는 경향이다. 종전의 많은 연구들이 기존의 이론을 타당화하는데 초점을 둔 것과 비교해 보면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것이다. 소위 '성과 연구'와 대립하는 '과정연구'로부터 시작된 이

러한 접근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실들을 밝혀 놓고 있다. 발견지향적 접근이 상담과정에서 찾아내는 이러한 사실들(hard facts)은 상담학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권 정혜(1991). 임상에서의 단일사례 실험연구법, 현장연구방법론 각론(한국심리학회편). 서울:성원사.
- 김 계현(1991). 상담과정 연구에서 연계분석의 이용, 현장연구방법론 각론(한국심리학회편). 서울:성원사.
- 박 성희(1994). 연계분석의 모형과 분석기법: 상담과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청주교대는 문집 제 31집, PP.101-135.
- 박 성희(1995). 담화분석기법을 활용한 상담과정의 분석. 교육학연구 제 33권 제 3호, pp.107-129.
- Andreozzi, L.(1985). Why outcome research fails the family therapist. In L.L.Andreozzi(Ed.), Integrating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Rockville, ML: Aspen.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nister, D., & Fransella, F.(1980). Inquiring man. Harmondsworth,

- England : Penguin books.
- Barrell, J. J., & Richards, A.(1982). Overcoming jealousy : An experiential analysis of common factor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 40-47.
- Barrell, J.J., Aanstoos, C., Richards, A.C., & Arons, M.(1987). Human science research method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7, 424-457.
- Becker, C.(1986). Interviewing in human science research. *Methods*, 1, 101-124.
- Bordin, E.S.(1965). Simplification as a research strategy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493-503.
- Borgen, F. H.(1984). Are there necessary linkages between research practices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457-460.
- Dawis, R.V.(1984). Of old philosophies and new kids on the block.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467-469.
- Denzin, N. K.(1970). *Sociological methods : A sourcebook*. Chicago: Aldine.
- Elliott, R.(1979). How clients perceive helper behavior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6, 285-294.
- Elliott, R.(1986). Interpersonal Process Recall as a psychotherapy research method. In L.Greenberg & W. Pinsof (Eds.),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 A research handbook*(pp. 503-527). New York : Guilford.
- Fischer, C. T.(1980).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assessment : Representational description.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11, 79-105.
- Gelso, C. J.(1991). Galileo, Aristotle, and science in counseling psychology : To theorize or not to theoriz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211-213.
- Gelso, C. J. & Fassinger, R. E.(1990). Counseling psychology : Theory and research on interven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355-386.
- Gelso, C. J.(1979). Research in counseling : Methodological and professional issu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8(3), 7-35.
- Gelso, C. J.(1982). Editoria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3-7.
- Gelso, C. J.(1985). Rigor, relevance, and counseling research : On the need to maintain our course between Scylla and Charybd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3, 551-553.
- Goldman, L.(1976). A revolution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543-552.
- Goldstein, A.P., Heller, K., & Sechrest,

- L.B.(1966). *Psychotherapy and the psychology of behavior change*. New York: Wiley.
- Gottman, J.M.(1979). Time series analysis of continuous data in dyads. In M.E.Lamb, S.J. Suomi, & G. R. Stephenson(Eds.), *Social interaction analysis : Methodological issues*(pp. 207-229). Madison, WI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Greenberg, L.(1980). The intensive analysis of recurring events from the practice of Gestalt therapy. *Psychotherapy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7, 143-152.
- Greenberg, L.S. & Pinsof, W.M.(1986). Process research : Current trends and future perspectives. In L.S. Greenberg, & W.M. Pinsof(Eds.),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A research handbook*(pp.3-16). New York : Guilford Press.
- Greenberg, L. S.(1992). Task analysis: Identifying components of intrapersonal conflict resolution. In S. G. Toukmanian, & D.L. Rennie(Eds.), *Psychotherapy process research: Paradigmatic and narrative approaches*. Newbury Park, CA: sage.
- Harre, R.(1974). Blue print for a new science. In A.Nigel(Ed.), *Reconstructing Social Psychology*. Baltimore : Penguin Books.
- Harre, R.(1980). *Social being : A theory for social psychology*. Totwa, NJ: Littlefield, Adams.
- Heritage, J.(1988). Explanation as accounts :A conversation analytic perspective. In C.Antaki(Ed.), *Analyzing everyday explanation: A case book of methods*(pp.127-144). London : Sage.
- Hill, C. E., & Corbett, M. M.(1993). A perspective on the history of process and outcome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3-24.
- Hoshmand, L. T.(1989). Alternate research paradigms :A review and teaching proposa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7(1), 3-79.
- Howard, G.S.(1984). A modest proposal for a revision of strategies for counseling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430-441.
- Howard, G. S., Curtin, T.D., & Johnson, A. J.(1991). Point estimation techniques in psychological research: Studies on the role of meaning in self-determined 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hchology*, 38, 219-226.
- Kagan, N.(1975). *Interpersonal Process Recall : A method of influencing human interaction*.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University of Houston.



- Kantor, D., & Andreozzi, L.L.(1985). The cybernetics of family therapy and family therapy research. In L.L. Andreozzi(Ed.), Integrating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Rockville, ML : Aspen.
- Kelly, G. A.(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 Norton.
- Levine, M.(1974). Scientific method and the adversary model :Some preliminary thoughts. *American Psychologist*, 29, 661-677.
- Lincoln, Y.S., & Guba, E.G.(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 Sage.
- Mahrer, A.R., Dessaulles, A., Nadler, W.P., Gervaise, P. A., & Sterner, I.(1987). Good and very good moments in psychotherapy : Content, distribution, and facilitation. *Psychotherapy*, 24, 7-14.
- Manicas, P. T., & Secord, P.F.(1983). Implications for psychology of the new philosophy of science. *American Psychologist*, 38, 399-413.
- Mill, J. S.(1953). A system of logic. Book IV, On the logic of the moral sciences. In P.P.Weiner(Ed.), *Readings in Philosophy of Science*(pp. 255-281). New York: Scribner's(Original work published 1843)
- Munley, P.H.(1974). Review of counseling analogue research method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320-330.
- Murray, H. A.(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eimeyer, G., & Resnikoff, A.(1982). Qualitative strategies in counseling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 75-85.
- Patton, M. J.(1984). Managing social interaction in counseling : A contribution from the philosophy of sc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442-456.
- Polkinghorne, D. E.(1984). Further extensions of methodological diversity for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419-429.
- Price, D., & Barrell, J.J.(1984). Some general laws of human emotion: Interrelationships between intensities of desire, expectations and emotional feeling. *Journal of Personality*, 52, 389-409.
- Price, D., & Barrell, J. J.(1980). An experiential approach with quantitative methods : A research paradigm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 75-95.
- Putnam, M.(1962). What theories are not. In E.P. Nagel, P. Suppes, & A. Tarski(Eds.), *Logic, methodology,*

- and philosophy of science : Proceedings of the 1960 international congress(pp. 240-251).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Resnikoff, A.(1978). Scientific affairs committee report, 1975-1977 : A discussion of method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7, 67-71.
- Ricoeur, P.(1970). *Freud & philosophy : An essay on interpretation*.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Rogers, C.(1975). The emerging person : A new revolution. In R. I. Evans (Ed.), *Carl Rogers : The man and his ideas*(pp. 147-176). New York : Dutton.
- Runyan, W. M.(1990). Individual lives and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psychology. In A. I. Rabin, R. A. Zucher, R. A. Emmons, & S. Frank (Eds.), *Studying persons and lives* (pp. 10-40). New York : Springer.
- Runyan, W. M.(1982). *Life histories and psychobiography : Explorations in theory and metho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Strong, S. R.(1991). Theory-driven science and naive empiricism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204-210.
- Strupp, H. H., Hadley, S.W., & Gomes-Swartz, B.(1977). *Psychotherapy for better or worse : An analysis of the problem of negative effects*. New York : Aronson.
- Suppe, F.(1977). *The structure of scientific theories*(2nd ed.), Urbana, IL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Wittgenstein, L.(1968). *Philosophical investigations*(3rd ed.). New York : Macmillan.(original work published 1921)

## The research paradigms and methodology of counseling

Sung-Hee Park

Cheongju National Teacher's University

The research paradigms of counseling can be divided in two perspectives. One is the 'received view' which has its root in empirical science and the other is the 'alternative view' which emphasizes meaning and understanding. The basic features of these two views have been compared in detail and some recommendations of its balanced use were suggested. In addition to it, new research methodology in counseling area have been introduced. Sequential analysis, single-case experimental research, time-serial analysis, analogue research, point estimation method, phenomenological study, hermeneutics study, legalistic model, life history study, autobiographic study, conversational analysis, experiential approach, cybernetics approach, task analysis, interpersonal process recall, and triangulation method were explained briefly.

Some interesting tendencies are found among the recent methods which were based on the 'alternative view'. Firstly, the research methods studying counseling are produced within the counseling area itself. Secondly, counseling process and research process are tend to be integrated simultaneously. Thirdly, all data related to research object are valued significant. Fourthly, various methods are adopted to study a phenomena. Fifthly, researchers are not bound to a specific theory or dogma. They tried to keep open attitude to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ame fact.